

The Impact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2025 연차보고서

2025 Annual Report

함께 지키는
우리의 지구

GREENPEACE

CONTENTS

캠페인 하이라이트 03

인사말 05

상세 캠페인 07

기후에너지 08

플라스틱 12

해양보호 14

생물다양성 16

시민참여 18

그린피스 사람들 20

캠페인 로드맵 22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24



함께 지키는 우리의 지구

전 세계 300만 명의 후원자님 덕분에
우리는 지구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두려움 없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로벌



© Alonso Garibay / Greenpeace

해양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20년 넘는 캠페인 끝에 ‘글로벌 해양 조약’이 공식 발효되며,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플라스틱 문제의 초점을 바꾸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문제 해결의 초점을 재활용이 아닌 생산 감축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글로벌



© Greenpeace

인도네시아



© Nita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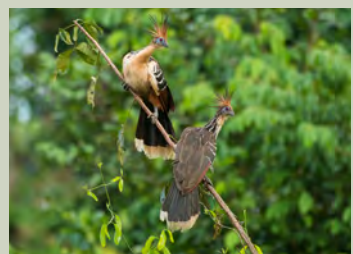
마지막 낙원을 지켜내다

세계적 생물다양성 지역인 라자 암팟 군도의 산호초를 위협하던 니켈 채굴 문제를 밝혀내, 인도네시아 정부가 채굴 허가 4건을 취소했습니다.

공급망의 이면을 드러내다

원주민 토지를 불법 점유해 사육된 가축이 국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실을 고발해, 240만 헥타르 규모의 원주민 영토를 지켜냈습니다.

브라질



© Valdemir Cunha / Greenpeace

한국



© Greenpeace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의 힘

시민들과 함께 용인 LNG 발전소 허가 취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감사에서 LNG 발전소 문제와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연과 마음을 잇는 대화



쑤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일

환경 운동의 본질은 사람과 자연의 연결에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앞으로 3년간 펼칠 캠페인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글로벌 해양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하자는 30X30 목표를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AI의 급격한 성장이 동아시아의 물과 전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AI 산업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전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남길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뤼디빈 우데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후원총괄이사



변화를 만드는 동아시아의 역할

극단적인 이상 기후나 해수면 상승, 그에 따른 기후 난민까지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매우 크지만, 저는 동아시아가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변화는 단순히 우리 삶의 터전을 살기 좋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글로벌 단체로서의 장점인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더 나은 정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중심에 서도록 할 것이고요.

모든 후원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마음이 있어야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 조화의 삶

환경을 지키다는 것은 결국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이자,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2025년에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 덕분에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생태계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변함없이 그린피스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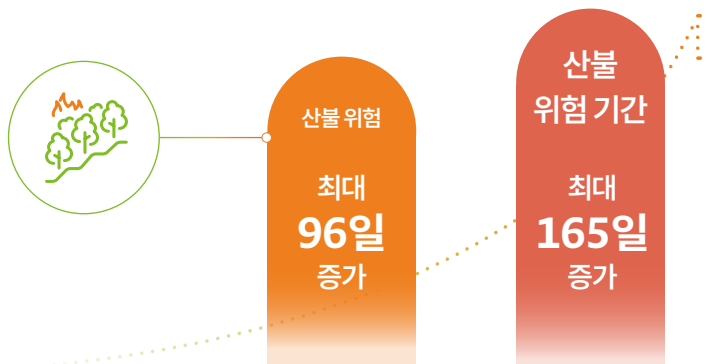
기후위기 시대, 사람과 지구 걸을 지키다

기후위기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흔들리는 지구.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발생 일수 증가 보고서 발표

그린피스는 카이스트 메타어스 연구진과 함께 산업화 이전보다 산불 위험 일수 및 기간이 최대 96일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의 근본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산불 발생 일수 증가 그래프

산업화 이전

1.5°C 상승시

기후재난 현장 긴급 대응 및 지자체 협력



2025년 3월 영남 초대형 산불 직후, 그린피스 기후재난대응팀은 현장을 찾아 피해 조사와 긴급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재민 설문조사, 어린이 회복 프로그램, 기후재난 강연과 공동체 회복 워크숍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남 산불뿐 아니라 충남 예산 수해, 강원 강릉 가뭄 현장에서도 긴급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린 아젠다 빌더스 출범, 나의 일상이 정책으로!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해 도넛경제학 기반의 정책 아이디어 6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 서울 시장 출마자들과 정당들에 제안되었습니다.

유럽



과학과 예술로 알린 화석 연료의 위험성



환경감시선 ‘아틱 선라이즈’호는 북해 가스관 주변을 모니터링하며 화석 연료의 해양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아티스트 아니쉬 카푸어와 협업해 대형 예술 작품을 설치하며,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미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LNG 발전소 건설 저지 시민 소송인단

LNG 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450명의 시민 소송 인단을 모집하고 법적 대응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미이행 문제를 사회에 알렸습니다.



© Yeo-sun Park / Greenpeace

새로고침 네트워크 발족

기후위기와 LNG 발전 문제에 대응하는 시민 그룹 ‘새로고침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기후정의 행진 참여와 피해 지역 기록 활동을 통해 시민 연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Greenpeace / Sungwoo Lee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인공지능(AI) 시대의 그림자 : 반도체 제조산업의 전력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AI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진단하고, 반도체 산업의 탈탄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AI 산업의 탄소 배출 경고등을 켜다

그린피스는 AI 반도체 제조 과정의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 문제를 세계 최초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탐사보도 영상 ‘AI의 어두운 면’을 통해 160만 명에게 이 위험성을 알리며, 빅테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연구 및 전기차 대중화 정책 활동



그린피스는 보고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통해 연평균 8조3천억 원이 내연기관차 지원에 투입되는 정책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재정을 전기차 전환에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전기차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교통’ 웹툰 시리즈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성’, ‘전기차 운전의 이점’ 등을 주제로 인스타그램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교통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친환경 이동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전기차 운전자 인터뷰 영상 제작

자동차 전문 크리에이터와 함께 전기차의 실제 장점과 산업 변화, 필요한 정책을 다룬 영상을 제작하고 전기차 전환의 필요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넘어 변화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2024년 부산에서 최종 합의되지 못하자, 그린피스는 한국과 전 세계 정부에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책임이 큰 음료 기업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 Jack Taylor Gotch / Greenpeace

UNEP 세계환경의날,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

그린피스는 제주 해변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기자회견과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대형
미세플라스틱
평균 밀도
954개/m²

2016년 전국 20개 조사지점
평균보다

↑
약 3.8배 높음

2025 플록조사: 플라스틱이 삼킨 교실



© Greenpeace

전국 9개 학교, 137명의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음료 기업에 플라스틱 감축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현장 참여

그린피스는 스위스 제네바 협상 현장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과 언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협상 전 과정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각국 정부에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축 행동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홍콩



“관객은 안 되고, VIP는 된다?” 공연장의 수상한 규칙

각종 스포츠 경기, 콘서트가 열리는 홍콩 카이탁 스포츠 파크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관객의 텀블러 지참을 막고 VIP석에는 플라스틱 생수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발표 이후, 공연장 측은 개인 텀블러 및 물병 반입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글로벌 해양조약, 드디어 현실로!

전 세계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6년 1월
드디어 공식 발효된 ‘글로벌 해양조약(BBNJ)’은
그동안 방치돼 온 공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적 약속입니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기까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 Greenpeace

한국 정부, 동아시아 최초로 BBNJ 비준 동참

3
월

2025년, 서울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제3차 유엔해양총회 (UNOC) 이전에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2025년 3월 동아시아 최초이자 UN 회원국 중 21번째로 BBNJ 비준에 동참했습니다.

심해채굴 반대 활동

7
월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 맞춰, 한국 정부를 포함한 회원국들에 심해채굴 중단과 심해 생태계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이어진 <씨그널> 상영회

8
월

3,000여 명의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된 해양보호 다큐멘터리 <씨그널 SEAGNAL: 바다의 마지막 신호> 상영회를 국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후원자님들과 만났습니다.

9월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국 60개국 달성 2026년 1월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

9
월



타이베이



남획과 인권 문제의 증거를 포착하다

수중 조사와 AIS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획이 산호초 쇠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 원양어업 인권 문제가 국가 경제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정부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숲과 생명을 되살리는 변화

생물다양성 캠페인은 2025년에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시민들이 자연복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도 확대했습니다.



© Greenpeace

주왕산 산불 시뮬레이션

해외 연구진과 함께 산불 시뮬레이션을 제작해, 다양한 나무가 함께 자라는 숲이 산불 피해에 더 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연복원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120분

침엽수 단순림



혼합림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 추진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보호지역 확대와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 강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해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의성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에서 숲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숲과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기록하며, 자연복원의 가능성을 데이터로 남기고 있습니다.

산불 특별법 대응 연대 활동

산불 특별법이 대규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단체·법률가들과 연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콩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의 전환



© Greenpeace

과도한 관광 산업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홍콩의 샤프 아일랜드에서 산호초 훼손 실태를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 정부는 보호 조치 강화를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아마존 불법 채굴의 고리 끊기



© Jurnasyanto Sukarno / Greenpeace

브라질 정부가 불법 금 채굴에 사용되는 굴착기를 국가 차원에서 등록·추적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채굴 장비의 이동과 사용을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시민 행동과 현장 조사가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환경 캠페인

그린피스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관찰자가 아닌
재난 현장에서 회복을 돕고, 정책을 변화시키고,
소송의 주체로 나서는 ‘능동적인 변화의 주인공’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Greenpeace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그린피스 시민대응단은 산불과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활동을 돕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
하며 재난 이후의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 Greenpeace

위어스 WEarth: 지구의 목소리



서울과 부천에서 열린 ‘위어스’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과 지구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녹음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품초등학교 회복 프로젝트

산불 피해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회복을 주제로 한 워크숍과 음원 제작 프로젝트를 안복진 음악감독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살아나는 숲을 관찰하며 느낀 마음을 직접 가사와 노래로 표현했고, 음원 수익은 전액 기부됩니다.



| 시민대응단 이야기 |

고사리 농사를 짓는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나요.
고사리가 다 타버렸지만, 뿌리가 남아 있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뿌리만 남아 있으면 다시 자랄 수
있다고요. 본인에게 전하는 위로 같기도 했고,
재난 이후의 희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활동이 끝나고도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3기 문유빈 님



바다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

저에게 바다는 회사예요. 돈도 벌고 생활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힘들 때 마음을 쉬게 해주는 소중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 일터이자 휴식처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수온이 계속 올라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고,
 낚선 물고기들이 보이죠. 폐어구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녀들의 안전까지 위협하지요.

사실 바다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매일 먹는 소금도 바다에서 오죠. 단순히 먼 곳의
 아름다운 곳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지켜야 할
 곳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유정 해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찾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그린피스 기후 시민활동을 하면서
 희망을 보고, 에너지를 많이 얻었어요.

그린피스 자원봉사 활동은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상에서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지만, 여기서는 채식 레스토랑
 정보를 공유하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 윤영우 봉사자



벌을 통해 세상을 배우다

그린피스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하늘고 양봉 동아리가 올해도 직접 생산한 꿀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높은 경쟁률만큼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도 큰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생명의 무게와 생태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인 학생은 “달콤한 꿀만 떠올렸지만, 벌의 생존을 살피고 개체 수 변화를 확인하면서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벌에 쏘이거나 개체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명의 무게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오승연 학생 역시 “예전에는 벌을 단순히 사람을 쏘는 곤충으로만 생각했지만, 직접 기르고 연구하면서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됐다”며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작은 생명인 꿀벌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있는 하늘고 양봉 동아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하늘고 양봉 동아리 이에인·오승연 학생



후원자님과 함께 만들어갈 그린피스 캠페인 3개년 로드맵

동아시아 지부 공통 방향과 전략

공통 방향



신뢰와 파트너십 강화

대중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의 연대를 강화합니다.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동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통합적 접근

생물다양성을 기후 대응의 핵심 요소로 보고, 두 영역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추진합니다.

협력으로 만드는 더 큰 변화



리더십 - 국제 협력 주도

각국 정부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끕니다.



AI/기술 - AI와 반도체 산업의 책임 강화

AI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책임을 요구합니다.



해양 - 글로벌 해양 캠페인 참여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양보호 활동을 연결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운동에 기여합니다.

서울사무소 3개년 목표

변화를 위한 전략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습니다

정부와 기업에 화석연료 의존, 기후 대응 부족, 환경 파괴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시민 참여가 실제 환경 성과로 이어지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입법을 앞당기고, 지역 정부까지 정책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방식



강력한 연대를 구축합니다

시민, 지역사회, 노동조합, 사회 정의 운동과 함께 폭넓은 협력 구조를 만듭니다.



담론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후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해결이 아닌, 책임과 정의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내부 협력을 강화합니다

모든 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 전략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31%(9,235원)



해양보호

5%(1,517원)



산림 보호

7%(2,220원)



플라스틱 / 건강한 삶

1%(315원)



다분야 통합 캠페인

4%(1,276원)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확산

16%(4,746원)



지역사회 참여,
비폭력 직접행동, 자원봉사

16%(4,7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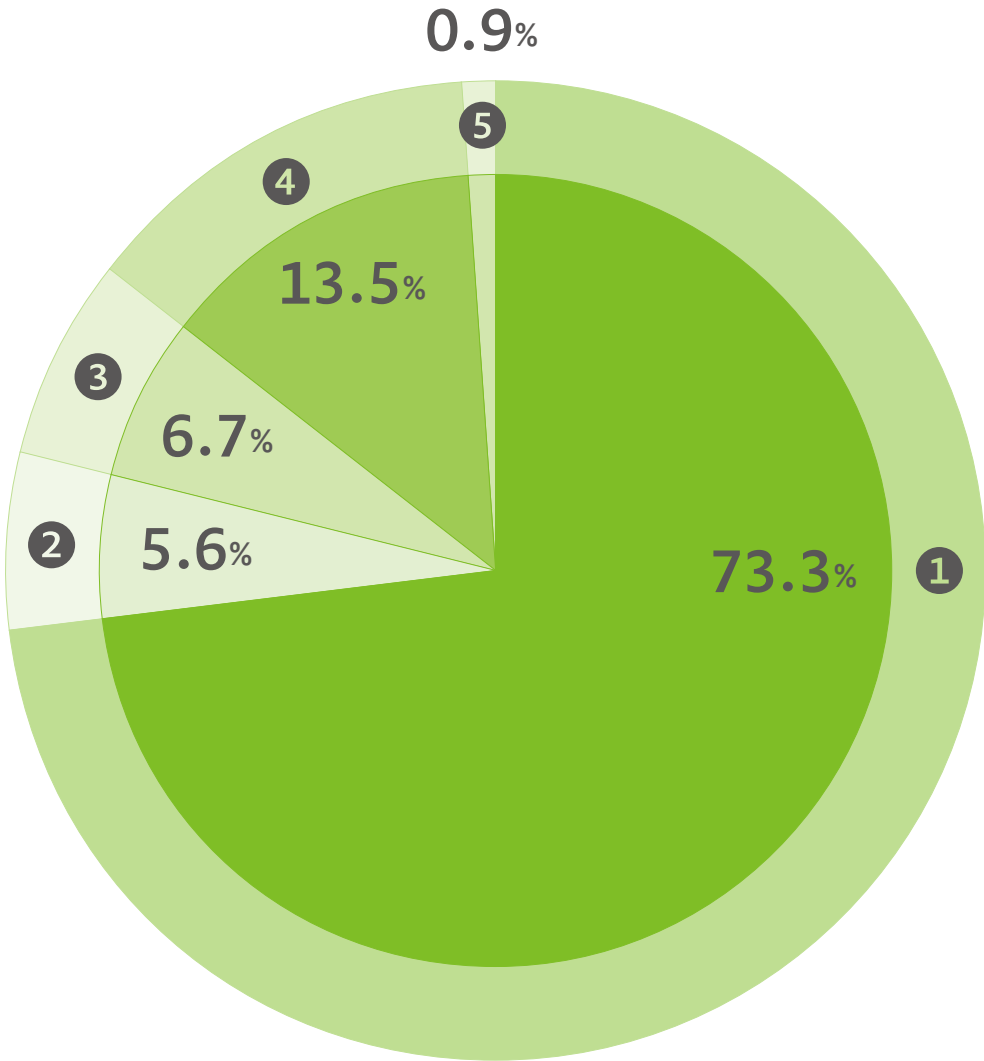
정책, 비즈니스 및
과학 연구

20%(5,941원)

2025 동아시아 지부 수입 내역

총 수입(단위: 원)

54,469,0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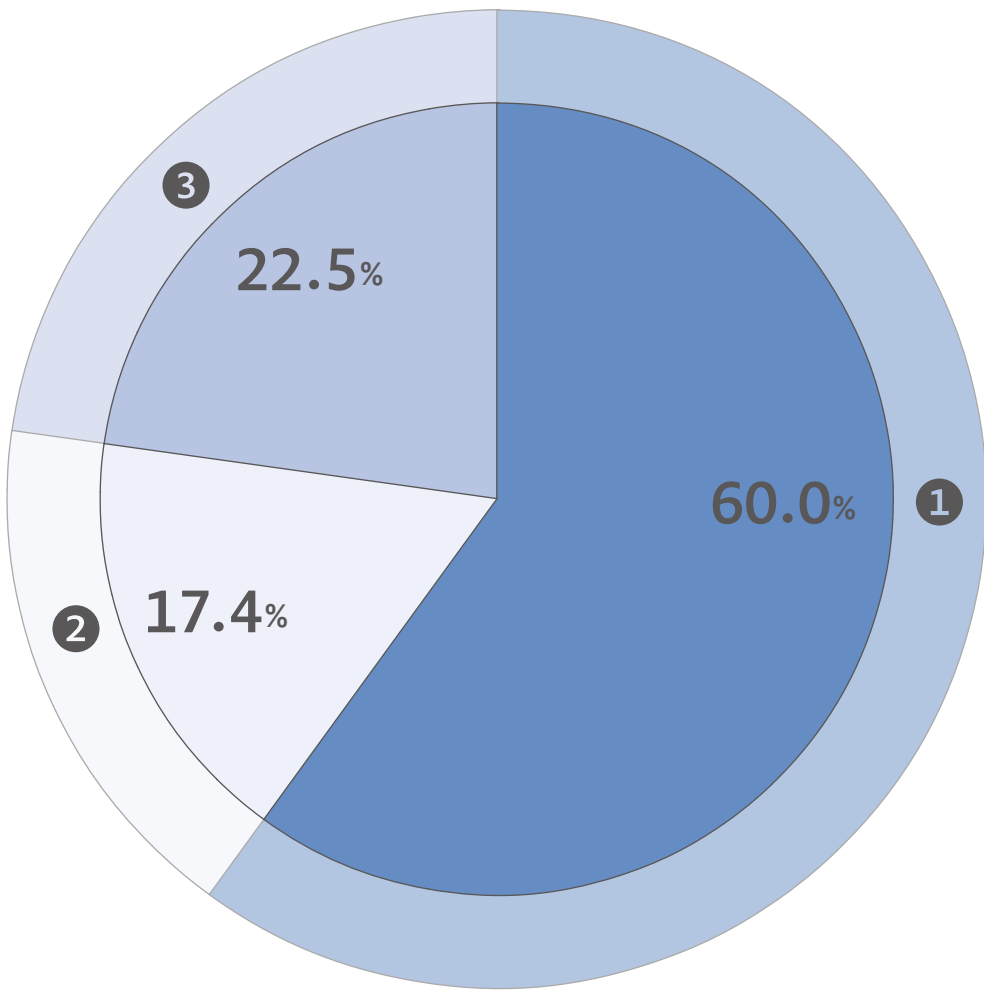


① 기존 후원자 후원금	39,909,606,383
② 신규 후원자 후원금	3,061,086,702
③ 재단 및 신탁, 고액 후원자 후원금	3,631,185,638
④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7,375,195,213
⑤ 이자 및 기타	491,976,064

2025 동아시아 지부 지출 내역

총 지출(단위: 원)

53,955,669,239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기후에너지 | 해양 보호 | 산림 보호 |

- 1
 건강한 삶/ 플라스틱 | 다분야 통합 캠페인 | 캠페인 언론 홍보 |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참여 | 환경 감시선 지원 | 정책, 사업 및 과학연구 |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캠페인 | 캠페인 조정 및 운영
 32,415,311,169

조직 관리

- 2
 매니저 관리 및 경영 | 법률 자문 | 인사 관리 | 행정 업무 | 재무 관리 | IT 지원
 9,389,730,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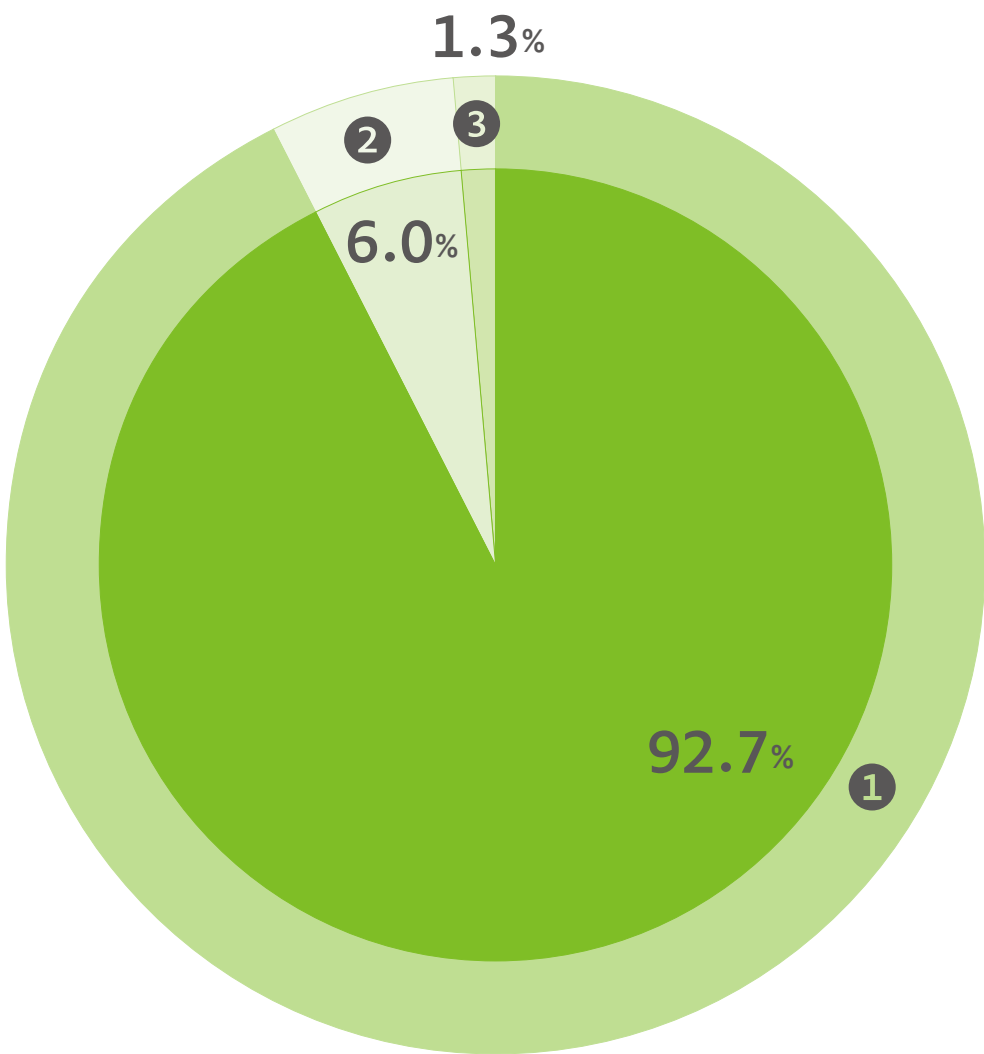
모금 및 후원자 관리

- 3
 후원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 후원자 관리 및 개발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 신규 후원자 모집 |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12,150,627,128

2025 서울 사무소 수입 내역

총 수입(단위: 원)

16,035,78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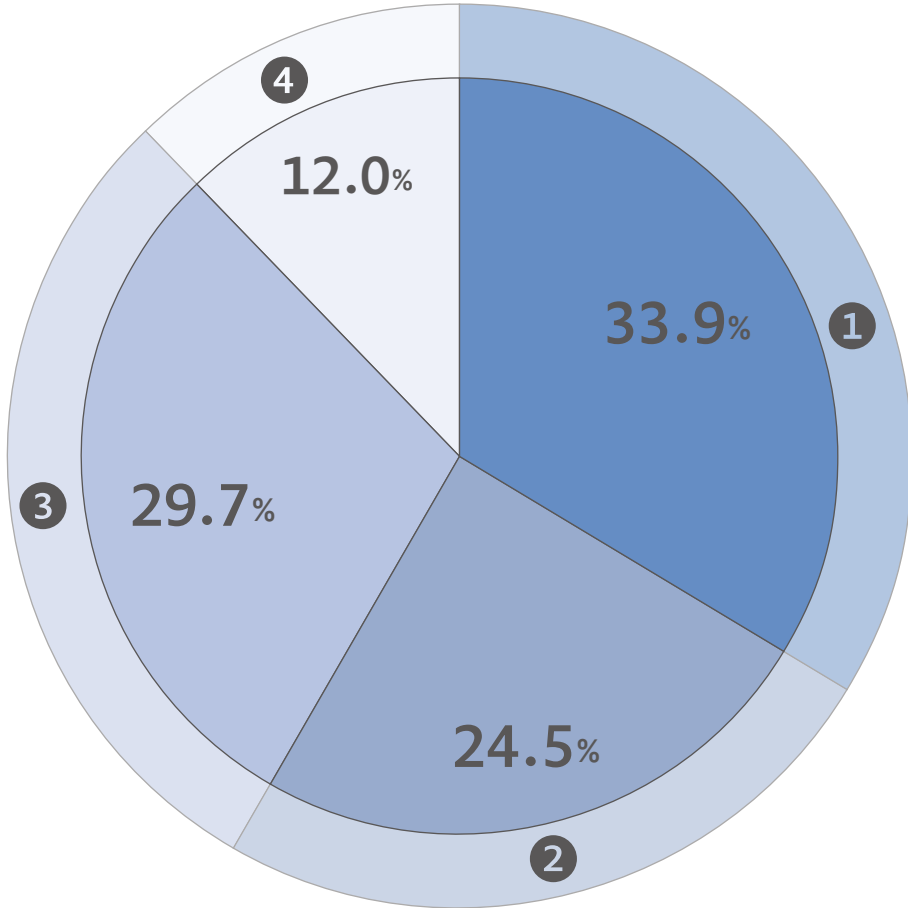


① 기존 후원자 후원금	14,869,294,966
② 신규 후원자 후원금	956,534,830
③ 이자 및 기타	209,952,125

2025 서울 사무소 지출 내역

총 지출(단위: 원)

15,791,346,837



캠페인

1

기후에너지 | 해양보호 및 극지방 | 생물다양성 | 독성물질/플라스틱 | 국제 그린피스 캠페인 지원 | 다분야 통합 캠페인 | 캠페인 조정 및 지원

5,348,306,558

캠페인 지원

2

캠페인 언론 홍보 |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참여 | 비폭력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 관리 |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 서포터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3,864,250,084

모금 및 후원자 관리

3

신규 후원자 모집 | 후원자 관리 및 개발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 고액 후원자, 유산기부 프로그램

4,689,661,638

조직관리, 기타

4

재무관리 | IT지원 | 인사관리 | 법률 자문 | 직원 개발 등 | 이자비용 및 환차손 등

1,889,128,558

고마운 자연에 오래오래 남기는 당신의 사랑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환경 파괴로
힘없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이 마음 아프고 화가 났어요.
그 피해는 결국 사람들에게도 돌아오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수래공수거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어차피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기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기부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산기부 박선화 후원자님

유산기부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래세대와 지구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안내서 받기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무료 유산기부 안내서를 먼저 받아보세요.

 신청 웹사이트: <https://www.greenpeace.org/korea/legacy>

 신청 이메일: philanthropy.kr@greenpeace.org

 신청 전화: 02-6952-6735(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그린피스 후원자 콘텐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후원자님께 다양한 환경 이슈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더 나은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특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 기간: 2026년 8월 31일 까지



설문조사

© Nick Cobbing / Greenpeace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



그린피스와 친구를 맺어 주세요!

그린피스를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추가해 보세요.
그린피스 챗봇 '그린이'를 통해 다양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시거나,
QR 코드를 통해 그린피스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맺어 주세요.

☎ 02-3144-1997

✉ help.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www.youtube.com/@greenpeacekorea

🔍 검색창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세요!